

전주시, 대만서 야간관광 매력 열띤 홍보

대규모 관광박람회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 참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홍보 마케팅 전개

전주시가 대만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전주 야간관광의 매력을 알렸다.

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펼쳐진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에 참가해 전주 야간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104개 국가의 기관, 여행사, 항공사 등 1300여 유관기관과 개별여행객 등 30만 명의 관광객이 참가하는 대만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 내 전주 야간관광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전주만의 특색있는 1박 이상의 체류형 야간관광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한복·한지·한식 등 우수한 한문화 콘텐츠를 보유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렸다.



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대만 난강전람관에서 펼쳐진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에 참가해 전주 야간관광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전주 야간관광 SNS 홍보 및 퀴즈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전주를 기념할 수 있는 홍보 물품도 배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 홍보 및 인접 시·군과 연계한 상품 홍보·상담도 전개했다.

특히 시는 한국관광공사 대만지사, 국내의 참가업체와의 간담회에도 참가해 신규 방안 상품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한국관광공사(KTO)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노은영 전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만 현지 박람회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전주 및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국내의 여행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신규 방안상품 개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개별관광객 대상 홍보 등을 전개해 전주 관광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4일 전주 덕진지구적십자봉사회(회장 라태원)와 간담회를 통해 적십자봉사회 운영 방향과 현안 사업,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주시의회-전주 덕진지구적십자봉사회, 간담회

운영 방향·현안 사업·건의 사항 등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4일 전주 덕진지구적십자봉사회(회장 라태원)와 간담회를 통해 적십자봉사회 운영 방향과 현안 사업,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적십자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인식개선 및 홍보, 봉사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라태원 덕진지구적십자봉사회장은

"전주시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무 조건 없이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적십자봉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육기 기자



스마트폰으로 치매 위험도 무료 체크한다

전주시, 인공지능(AI) 간편치매체크서비스... 이달까지 제공

전주덕진소방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도내 시험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덕진구 관내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장 9곳에 대하여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점검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여부 ▲각 시험실, 복도·통로 등 소화기 적정 비치 여부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대비 파나 대피로 확인 ▲소방차 출동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가연성 물질 등 화재위험 요인 사전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난방용품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강봉화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대학입시를 위해 실 틈 없이 공부에 매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여 전주시가 2024년 7월부터 해오고 있는 인공지능(AI) 간편치매체크서비스가 오는 11월 말까지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60세 이상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시작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2,152명이 이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1668-4712)를 걸어 발송되는 문자의 링크로 접속하거나, 전단지 QR 코드를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를 입력한 후 약 1분 정도 말하기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완료 후에는 음성 답변을 기반으로 언어 유창성 및 의미역력에 대한 분석이 이뤄진다. 정상군일 경우에는 치매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주시치매안심센터나 전주시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검사는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주시치매안심센터나 전주시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검사는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팔복동 칠일경로당 이삼용 회장, 백미 20kg 21포 전달

팔복동 주민센터 찾아... "관내 경로당 21곳에 전달해 달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칠일경로당 이삼용 회장은 4일, 팔복동 주민센터(동장 장진영)를 찾아 관내 경로당 21곳에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kg 21포를 전달했다.

이삼용 회장은 그동안 직접 농사지어 도정해 백미를 꾸준히 기증해 왔으며, 이번엔 기증된 백미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점심, 저녁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이삼용 칠일경로당 회장은 "팔복동

경로당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차원에서 올해 정성들여 농사지어 수확한 백미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팔복동 분회장으로서 우리 팔복동 경로당들이 더욱 화합하고 즐거운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진영 팔복동장은 "동절기를 맞아 관내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을 보여주시는 이삼용 분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백미는 관내 경로당에 소중하게 잘 전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경로당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경로당에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주시치매안심센터나 전주시 치매검진 협약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검사는 가능하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AI 간편치매체크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검사이니,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오는 11월까지 한 달간, 꼭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경찰청, 보험사기단 46명 무더기 검거

뇌·심혈관 보험 다수 가입... 허위 진단서로 37억 보험금 타내

뇌·심혈관 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허위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험설계사, 의사, 피보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보험설계사 A씨, 의사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짧은 기간 내 특정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특정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3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병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때 자신에게 보험상담을 받으려 오는 피보험자들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혹된 피보험자들은 진단서만으로는 병의 입증이 까다로워 보험사기의 주 대상이 되는 뇌·심혈관 질환 보장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이후 A씨는 과거 병원 근무 경험과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알고 있던 병원 6곳을 선정, 피보험자들에게 해당 병원으로 가 진단을 받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피보험자들이 A씨의 말에 따라 해당 병원으로 가자 미리 공모한 의사 B씨 등 8명은 이들이 뇌·심혈관 질환을 앓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의사들은 질환을 정말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피보험자인 거짓 환자와의 진료 차트를 바꿔치기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보험자들은 이 진단서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 보험사를 통해 약 3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대 한 사람이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1년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러한 범행을 밝혀내 브로커까지 엮인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박호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장은 "보험사기 범행은 광범한 시민들에게까지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한 범죄"라며 "앞으로 우리 경찰은 사회적 해악인 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 강력 한 단속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뜻잇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산농협)



아리울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원현연 지부장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구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규석 조합장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영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한전수 조합장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기동 조합장



군산원예농협
고계곤 조합장